

시선

사설

무엇을 더 잃고 나서야 본질을 지향할 것인가

- 지난 18일 전국교수대회를 보며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 대학교수 천여 명이 모여 ‘고(故) 고현철 교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열었다. 우리사회 지성의 첨단이자 학문의 첨병인 교수가 천여 명 단위로 모인 것 자체로도 이미 이례적인 사태지만, 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외쳤다는 것은 상아탑을 둘러싼 작금의 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난 달 17일에 ‘총장 직선제 무력화’에 항의하며 부산대학교 교내에서 투신한 故고현철 교수를 추모하고자 전국 80여개 대학에서 모여든 교수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에 힘입어 전국의 대학은 1991년부터 총장 직선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국공립대에 대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며 총장 직선제 폐지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간선제를 도입한 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구성원이 선출한 총장 후보에 대해 인선을 거부하기도 했다.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 누구를 앉히느냐’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논의의 본질은 결국 ‘교육부의 과도한 대학 운영 개입’이다. 모든 대학은 각 대학이 표방하는 가치와 교육철학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책과 입맛에 맞도록 대학을 길들이는 사이에, 대학 간의 변별적인 가치와 철학은 점차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교육부가 지정한 각종 지표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상아탑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각 대학들이 저마다 지향하는 바를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고 중앙 일보 대학평가나 조선일보-QS 대학평가 같은 캠퍼스 외부의 수많은 대학평가가 난립하며 대학에 각종 정량적 지표를 일률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이 수많은 정책과 지표들 사이에서 길을 잊고 허우적대는 동안 대학 본연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한국 대학사회를 덮치고 있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당연하게도, 우리대학은 우리대학이 표방하는 가치와 교육철학을 지닌다. 하지만 대학이 응당 가져야 할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요소가 망실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학의 미래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교육부의 손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대학의 진정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할 때다. 외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스스로의 모습을 맞춰가는 것은 지성의 상아탑이 지향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부산대의 한 지성은 자신의 목숨 값으로 작금의 세태에 경종을 울렸다. 정부는, 그리고 대학은, 무엇을 더 잃고 나서야 지금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총학, 자치회비 감사

확대 시행 예정

미디어 여론동향 2015. 9. 14 ~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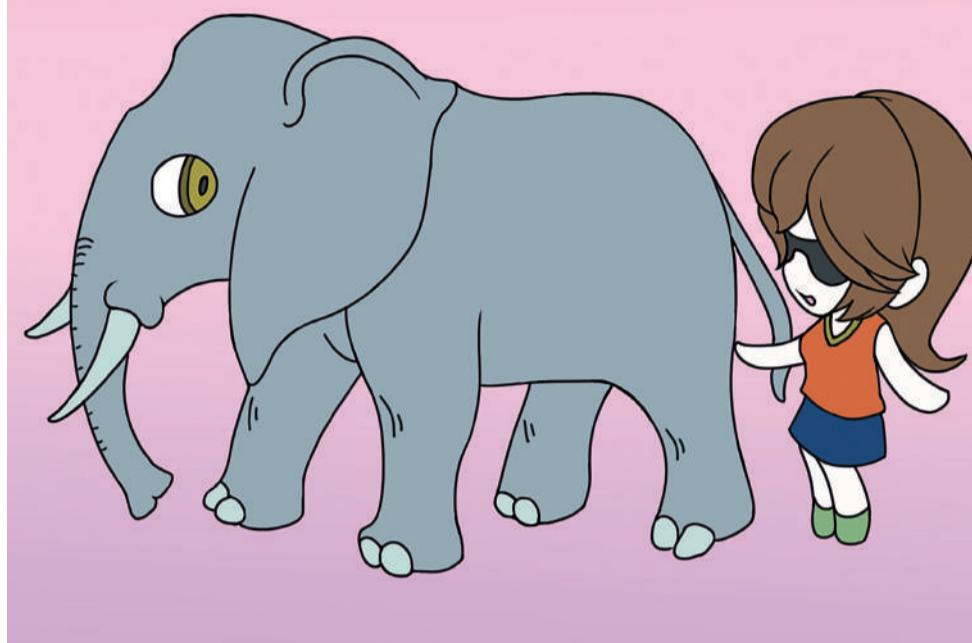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지난 18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전자정보대학에서 경희-삼성 어울림 협약(‘경희-삼성 어울림 협약’·산학협력 본격 시동/대학주보 온라인, 2015.9.22) 본 행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경희대-삼성전자 산학 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협약식에서는 산학 협력 공동연구 주제를 담당할 교수와 삼성전자 실무진이 모여 향후 공동 연구과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 내용은 지난해 논의된 사항인 ▲산학협동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삼성전자 DS(Device Solution)부문 임직원의 우리학교 교원 위촉 ▲교내 우수인력 양성 지원 ▲삼성전자 실습기자재·장비 기증 ▲삼성전자 임직원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총여, 생리공결 오남용 8.67% 추정, 진짜?



이주의 주제 - 총여, 생공 오남용 통계 발표

합의를 통한 생공 제도개선에 힘써야

최재원
(정기자)

영국의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을 인용해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을 남겼다. 통계가 잘못 이용됐을 때 발생하는 착시효과나 진실을 호도하는 문제를 잘 꼬집은 어록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총여학생회(총여)의 ‘생리공결제도(생공) 통계’ 논란을 두고 꼽씹어볼 필요가 있는 말이다.

총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생공 통계를 청운관 앞에 게시했다. 총여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생공의 남용 사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총여가 생공의 ‘당위’를 위해 제시한 통계가 도리어 문제를 키웠다.

우선 조사대상이었던 생공을 1회 이상 신청한 경험이 있는 총 2,975명 중, 1회 이용자 1,714명과 4회 이용한 80명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았다. 단과대학 별 이용자 수와 총 신청횟수만 제시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축제기간과 샌드위치 휴일 등에 신청한 생리공결제도만 오남용 사례로 집계됐다. 오남용 사례를 모두 포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

리통으로 인해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를 오히려 오남용 사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총여 금 회장 역시 “안타깝게도 자신의 공강일에 맞춰 연이어 사용하는 등의 오남용 사례를 모두 집계해 수치로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지를 펼하할 생각은 없다. 생리라는 사적영역에 대한 조사였던 만큼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해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가 취지나, 노력 등과 관계없이 생공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이다. 한계가 분명한 통계를 무리하게 공개했다는 비판과 여기에서 파생한 생공 자체에 대한 평소의 불만만 쏟아져 나왔다.

지금과 같은 성대결, 혹은 혐오발언 등이 주도하는 생공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수다. 올해 초 총여는 여성의 일반적인 생리주기를 고려하여 가령 5월 28일 신청자가 6월 2일에 또 다시 생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을 기획했던 바 있다. 그러나 생리기간으로 인해 월말과 월초에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 등의 문제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총여는 ‘제도개혁’에서, ‘인식개선’으로 활동방향을 틀었다. 의미가 없진 않지만, 인식개혁만으로는 신입생이 들어오고 졸업생이 떠나는 우리학교 공동체의 기본적인 특성만 감안해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완벽한 제도개혁을 이루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다음 총여가 생공 제도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 운영 중 핵심에 해당하는 ‘산학협동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학교는 향후 3년간의 연구진행을 목표로 각 학부별 사업부와 밀착 개발에 돌입한다. 산학협력단 조민형(전자·전파공학) 단장은 “삼성전자와는 처음 시도하는 이공계열 산학협력인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며 “학생들에게도 경력과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제 3차 확대 운영위원회(학운위)가 열렸다. (“자치회비 회계감사 확대 시행을 통해 신뢰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대학주보 온라인, 2015.9.23) 학운위에는 성원 108명 중 61명이 참석해 ▲총학생회 방중 활동·결산 보고 ▲총학생회 2학기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47대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2학기 자치회비 분배율 심의 및 의결 ▲특별기구 결산보고가 이뤄졌다. 총학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생회가 자치회비를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학생회의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있는 것도 못 써먹는’ 학교가 부끄럽다

세시봉

이시온 <뉴스팀장>



지난 18일 국제캠퍼스에서 열렸던 삼성전자와의 산학협력 협약식은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동연구 논의 후 산학협력단 측은 ‘학교 소개’를 시작했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QS대학평가로부터 우리학교 공학계열의 연구진들까지 매번 학교가 자랑하는 ‘주요 항목’들이 소개됐다. 그리고 이어진 빼아픈 농담은 실로 낯부끄러웠다. “우리학교 공학계열이 좀 안 좋다고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등학생’ 때문에 (인식이) 그렇습니다”

위 이야기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학교 공학계열의 ‘이미지’ 문제를 짚은 것이다. 1969년 시작한 우리학교 공학계열은 규모나 연구역량에서 각종 대학 평가의 7-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시수준과 진학률 또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분명 학교가 주장하는 ‘내실과 수준’은 거짓이 아니다. 하지만 학교의 기대만큼 사회가 우리학교 공학계열을 봐주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봄야 한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사항들이 필요하다. 교수의 연구역량, 학교의 시설 인프라, 교육에 관한 비전 등의 구체적 제반조건들이 그런 ‘요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설사 우리학교가 이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결국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학생들은 사회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대학을 보는 눈인 ‘이미지’는 위 협약식에서 언급됐던 ‘입시생의 시각’을 포함해 기업이 졸업생을 보는 ‘기업의 시각’, ‘학계의 시각’ 등 다양한 사항들이 종합돼 형성된다. 하지만 일부 사항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처는 미흡한 수준이다.

하나의 캠퍼스임을 표방한 지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대형 학원가와 입시 포털사이트는 하나의 학교로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몇몇 대학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통용되는 일부 교육기관 배치표에선 여전히 학교가 발표한 최종합격자 성적 자료에 크게 못 미치는 과거의 점수를 표기중이다. 학교 홍보대사 단체 역시 고유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을 따로 덧붙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가 방관하는 사이 이미지의 ‘빈틈’들은 기존의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결국 향후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미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협약식의 연이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중 응용과학계열과 디자인·공학계열 등 응용학문 위주의 학과가 분포돼있다는 설명이 오가자, 자리에 있던 임원들 중 다수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전체 인원의 절반 가량이 공학계열인 국제캠퍼스 명칭이 왜 ‘국제’인지, 이에 대한 인식개선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 또한 학교는 찾아내야 할 것이다. 명확한 이원화·특성화의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면 향후 발전과는 관계없이 우리학교 공학계열의 ‘이미지’는 그날의 협약식처럼 영원히 그대로일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기)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